

## 오마이뉴스 창간 5주년 축하 메시지

오마이뉴스 가족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창간 다섯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오마이뉴스가 창간되고 한 달쯤 됐을까요. 오연호 대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 당시 오마이뉴스나 저에 대한 평가는 '과연 될까?' 였습니다.

그러나 됐습니다. 저는 대통령이 됐고, 오마이뉴스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언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. 시민 참여에 있어서나 사회적 의제 발굴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. 과연 '대한민국 특산품' 이라고 할 만합니다.

요즘은 언론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언론과 권력 간에 거래도 없어졌습니다. 건전한 비판은 정책에 반영하고 왜곡된 기사는 바로잡고 하는, 그런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제기한 '브리핑제도' 도 정착되고 있습니다. 정부와 관련된 기사의 품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. 정책비판 수준이 높아져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정확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

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오마이뉴스가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언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.

개혁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결코 중단하거나 좌절  
하지 않겠습니다.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뚜벅뚜벅 열심히 하겠습니다.  
다시 한번 오마이뉴스 창간을 축하드리며,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